



미국 경기회복 속도, 대공황 이후 가장 부진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종료를 선언한 2009년 6월 이후 2년이 지났지만, 경기회복세는 대공황 이후 가장 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- 1990년대 이전에는 경기침체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한 반면,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세가 매우 느리게 나타났으며, 현재는 1991년과 2001년과 같은 느린 회복세가 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.
-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 증가,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,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약화,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능력 약화 등을 경기회복세 둔화 지속의 이유로 지적함.
-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대출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고,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, 정부부채 급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도 쉽지 않은 상황임.

■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, 1990년대 84%에 불과하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 3/4분기 127%까지 상승한 후 2011년 1/4분기 현재 112%로 하락하였으나, 여전히 부채가 소득을 초과하고 있음.

- 미시건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후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중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24%로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시장 악화가 소비자 신뢰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음.
- Credit Suisse는 가계가 부채비율을 1990년대의 84%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3조 3천억 달러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소득을 3조 9천억 달러 늘려야하며, 이를 위해서는 9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, 7/5)